

경제

이코노 & 비즈 피플

정재덕 하이트진로 광주전남 본부장

“술시장은 스킨십... 봉사 많이 하겠습니다”

‘情나눔 참이슬 봉사단’ 목표지역에도 발족

광주전남 시도민 하이트 각별한 애정 감사

“광주전남 시도민들에 좀 더 가까이 질 수 있도록 지역민을 위한 봉사...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덕(54) 하이트진로주식회사 초대 광주전남권역본부장은 “수입주류가 시장을 잠식하고 한·미 FTA 등으로 인해 맥주와 소주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다”

최근 주류시장은 수입주류가 지난해 60%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미FTA로 인한 미국산 와인의 공습으로 와인 소비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될 전망이다. 하이트진로도 맥주와 소주가

각각 전년 대비 3.5%, 0.5%가 감소했으며 향후 전망도 밝은 편은 아니다.

정 본부장은 “글로벌 경기 불황과 고물가 등 경제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광주전남에서 하이트 맥주 67%, 참이슬 20.5%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권역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광주전남권역의 선전배경에 대해 정 본부장은 “하이트진로에 대한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각별한 애정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참이슬 ‘情 나누기 지역사랑 캠페인’ 등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 것이 힘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전남권역은 지난 2004



년 이후 처음으로 참이슬이 올 상반기 광주전남 시장점유율 20.5%를 기록하는 등 기업을 토하고 있으며 하이트진로 내부 심사에서 시장신장 등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정 본부장은 “인위적인 영업시장 확대를 피하기 보다는 시도민들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다 보면 시장점유율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를 위해 각종 지역축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광주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참이슬 봉사단’을 오는 6월 목표지역에도 발족해 봉사과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새롭게 출시된 뉴 하이트가 빙점여과공법으로 제조돼 기존 제품보다 신선한 맛이 일품이다”며 “지역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전남 장흥출신으로 장흥고와 조선대학교회계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하이트맥주(주)에 입사해 광주지점, 순천지점, 전주지점 등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12월 하이트진로(주) 호남권역 맥주사업부 본부장에 취임한 후 지난 1월 하이트진로(주) 광주전남권역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



도·농 상생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태식 농협 광주지역본부장(오른쪽)이 17일 광주 시청 아외음악당 공터에 개장한 ‘도·농 상생 농·축산물 화요 직거래장터’ 판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직거래 장터는 매주 화요일 열리며 우수 농산물을 시중보다 10~20% 저렴하게 판매한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월 가계대출 다시 증가 1월보다 1조↑

2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다시 늘어났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2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을 보면 대출 잔액은 64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1월 대출잔액은 639조3000억원으로 2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가계대출은 다시 반등한 것이다.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은 389조4000억원으로 지난 1월보다 약 8000억원 증가했다. 예금은행의 2월 가계대출잔액은 453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000억원 늘어났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7000억원 늘어난 30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도 5000억원 가량 늘어난 186조

7000억원이다. 이들 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83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조1000억원이다. 지역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수도권이 412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000억원 늘었다. 비수도권 역시 227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연합뉴스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

국토부 개정안...중복 입주 확인 시스템 운영

앞으로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고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

하로 바닥방수시설과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시스템도 운영한다. 국가, 지자체, LH(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보급주택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임대주택 중복 입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정부 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1만여명 투입 피해신고 접수·단속

정부는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피해신고를 일제 접수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을 발표했다.

◇신고자 구제 방안 강화=정부는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금감원·경찰청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총 1만1500명의 인력을 투입, 피해신고 접수와 수사·단속을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율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율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행위 등이다.

정부는 신고활성화를 위해 피해자의 신분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익명으로도 신고를 접수한다.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출석·귀가시 동행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실비정산을 조건으로 소송지원도 한다.

◇유형별 불법 사금융 제도개선책 마련=정부는 법정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초과이익의 환수상당액은 피해자 구제용도로 사용된다.

대출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불법 대부광고 게재를 중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계좌이체는 입금 후 10분 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지연 인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노지채소 수급안정 자금 200억원 무이자 지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는 노지채소(배추·무) 수급안정 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노지채소(배추·무) 수급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배추 자금이 29개 업체에 175억원, 무 자금이 9개 업체에 25억원이 지원된다.

사업지원 대상자는 농가·작목반 등과 계약재배 약정을 하고 배추·무 출하시기에 수매계획이 있는 산지유통법인 및 검치업체이다.

대출금리는 무이자이며, 대출

기간은 3년 이내로 대출기간동안 매년 계약재배를 통해 대출액의 220% 이상 배추·무를 수매해야 한다. aT는 2011년도에 배추 계약재배 자금을 17개소에 114억원을 지원했으며, 2012년도에는 관련업체의 지원신청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해 총 38개소에 200억원을 20일부터 지원한다.

성창현 광주·전남지사는 “이번 자금지원으로 배추 12만 4000t, 무 2만t 규모의 계약재배 수매가 예상된다”며 “배추·무의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상속소송 끝까지 갈 것”

이건희 삼성 회장이 17일 상속권을 둘러싼 형제간 소송 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속 소송에 대해 “고소를 하면 끝까지(맞)고소를 하고,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라도 갈 것”이라며 “지금 생각 같아서는 한 푼도 내 줄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선대 회장 때 벌써 다 분제(재산분배)가 됐고 각자 다 돈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뒤 “CJ도 갖고 있는데 삼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욕심이 좀 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형제들에게) 섭섭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상대가 안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